

전기차/배터리 (Overweight)

유럽, 보조금 축소 여파 우려
미국, 비테슬라 전기차 업체들 빠긋

전기차 산업 포인트

중장기 전기차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시적인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 상태. 관련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는 영향 미미하나, 단기 투자자들은 속도 조절할 시점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 독일, 보조금 폐지로 7월 누적 PHEV 판매 43% 급감, 9월부터 리스를 포함 기업고객향 정부 보조금 폐지
- 독일 기업 고객의 자동차 판매 비중 60%에 달해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악 필요
- GM, 수익성 고려한 신중한 전기차 판매 전략으로 예상보다 성장 속도 낮을 수도
- 포드 CEO, 전기차 생산 목표 늦추는 대신 향후 5년간 하이브리드 판매 4배 확대 예정
-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테슬라에 의한 가격 인하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확대 속도 조절
-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유럽, 미국의 감속에 유의할 필요
- 중국발 공급과잉이 전기차/배터리 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점도 고려해야

독일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추이

Incentive	To 31 December 2022	To 31 December 2023*	To 31 December 2024*
BEVs up to €40,000 net list price (€45,000 from 1 January 2024)	€9,000 (net, €6,000 government + €3,000 carmaker)	€6,750 (net, €4,500 government + €2,250 carmaker)	€4,500 (net, €3,000 government + €1,500 carmaker)
BEVs up to €65,000 net list price	€7,500 (net, €5,000 government + €2,500 carmaker)	€4,500 (net, €3,000 government + €1,500 carmaker)	€0 (net, €0 government + €0 carmaker)
PHEVs up to €40,000 net list price	€6,750 (net, €4,500 government + €2,250 carmaker)	€0 (net, €0 government + €0 carmaker)	€0 (net, €0 government + €0 carmaker)
PHEVs up to €65,000 net list price	€5,625 (net, €3,750 government + €1,875 carmaker)	€0 (net, €0 government + €0 carmaker)	€0 (net, €0 government + €0 carmaker)

자료: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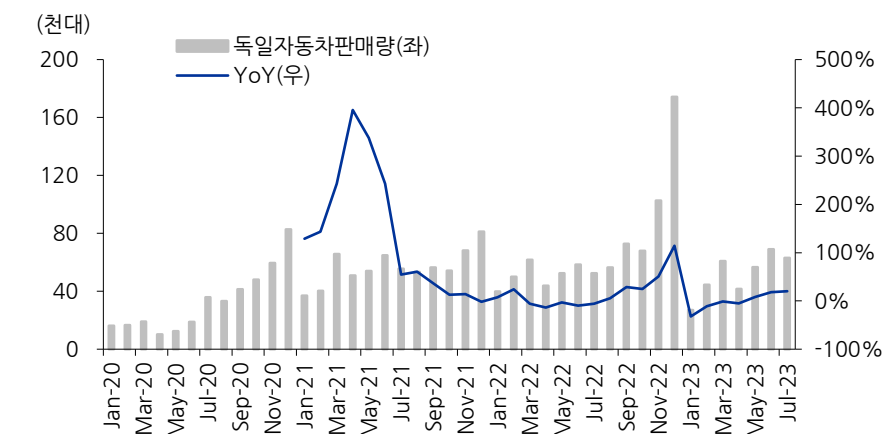
*정부 보조금은 23년 9월부터 개인 구매자만 수령 가능

유럽, 미국 시장 중장기 전망 유효하나, 단기적으로 빠격겨려

독일, 보조금 축소 로 수요 부진 지속

유럽 전기차 판매의 30%를 차지하며 절대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이 보조금 인하 이후 부진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2022 연말까지 5,625 ~ 9,000 유로까지 지급하던 전기차 구매보조금(정부 지급분+전기차업체 지급분)을 올 해부터 4,500 ~ 6,750 유로로 축소했다. 특히 PHEV는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올 7월까지 누적 판매가 전년비 43% 급감했다. 내년부터는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만 4,500 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2025년부터는 보조금이 아예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올 9월부터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개인 구매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기업 차량(리스 차량 구매 포함) 등은 정부 보조금은 대상이 아니고 전기차 업체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독일은 기업 차량 구매 비중이 전체의 약 60%로 높다. 따라서 전기차 판매의 단기적인 위축이 예상된다. 올해에는 보조금 축소 전 구매 수요 증가로 하반기 판매가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나, 내년에는 성장 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수요 약세 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축소 이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고, 이는 전기차 가격 인하 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도표 1. 독일 전기차 월별 판매량 둔화되고 있어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미국 비테슬라업체들 속도 조절 스탠스

GM 은 유일한 저가 전기차인 볼트의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가,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의 가격 공세에 대항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GM 의 전기차 신차들은 Celestiq, Escalade, Lyriq, Silverado, Sierra 등 대부분이 중고가 차들에 집중되어 있다. 적자 폭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를 판매를 늘리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포드는 전기차 판매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수정했다. 2023 년말 까지 갖추려던 연산 60 만대 전기차 생산 체제 확보를 2024 년말로 늦추었고, 2026 년 200 만대 생산 체제 확보는 포기했다. 또한 CEO 는 하이브리드 생산을 향후 5 년간 현재 대비 4 배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전기차 부문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다. 테슬라가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가계의 소비여력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전기차 가격 인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 투자자들은 속도 조절 필요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인류의 목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부문의 탄소중립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수여서 중장기 전기차 시장 성장은 가시성이 높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부침이 있을 수 있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도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 초기 국면을 서서히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간의 경쟁이 달궈지고 있고, 승자와 패자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나누어지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자인 테슬라와 BYD 의 주가가 여타 경쟁사들과 확연히 다른 것이 이를 증명한다. K 배터리에 대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중국과 테슬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글로벌 판도가 K 배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한 일부 K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에 신중을 권고한다.

도표 2.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단위: 대)	2022A	2023F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999,422	1,664,703	2,332,275	3,274,528	4,506,910	5,989,580	7,640,780	9,387,523	11,250,888
미국 전기차 판매량	897,627	1,528,892	2,155,075	3,049,081	4,187,236	5,534,725	7,008,198	8,523,026	10,100,518
%YoY	47.64%	70.33%	40.96%	41.48%	37.33%	32.18%	26.62%	21.62%	18.51%
미국 자동차 판매량	13,814,640	14,229,079	14,655,952	15,095,630	15,548,499	16,014,954	16,495,403	16,990,265	17,499,973
%YoY	-8.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50%	10.74%	14.70%	20.20%	26.93%	34.56%	42.49%	50.16%	57.72%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01,795	135,810	177,200	225,446	319,674	454,854	632,582	864,497	1,150,370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07,315	8,283,998	10,038,809	11,959,196	13,898,543	15,925,032	17,920,692	19,658,952	21,148,290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421	7,917,014	9,574,733	11,367,188	13,143,386	14,952,647	16,667,456	18,019,250	18,975,974
%YoY	83.74%	33.63%	20.94%	18.72%	15.63%	13.77%	11.47%	8.11%	5.31%
중국 자동차 판매량	22,541,817	23,443,490	24,381,229	25,356,478	26,370,737	27,425,567	28,522,590	29,663,493	30,850,033
%YoY	5.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6.28%	33.77%	39.27%	44.83%	49.84%	54.52%	58.44%	60.75%	61.51%
일본 전기차 판매량	54,862	84,258	122,460	175,990	254,880	372,591	534,868	764,922	1,089,688
%YoY	27.51%	53.58%	45.34%	43.71%	44.83%	46.18%	43.55%	43.01%	42.46%
일본 자동차 판매량	4,626,276	4,718,801	4,813,177	4,909,441	5,007,630	5,107,782	5,209,938	5,314,137	5,420,419
%YoY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19%	1.79%	2.54%	3.58%	5.09%	7.29%	10.27%	14.39%	20.10%
한국 전기차 판매량	143,339	177,531	207,644	243,650	275,530	305,278	330,535	361,589	397,278
호주 전기차 판매량	31,750	41,441	54,211	71,073	93,385	122,969	162,273	214,595	284,384
뉴질랜드 전기차 판매량	4,515	5,640	7,118	9,037	11,427	14,433	18,169	22,766	28,595
인도 전기차 판매량	48,429	58,115	72,644	92,257	119,934	157,114	207,391	275,829	372,370
기타 아시아 총합	228,032	282,726	341,616	416,017	500,277	599,793	718,367	874,779	1,082,628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34,134	3,197,529	3,897,331	4,680,757	5,482,662	6,365,339	7,365,233	8,478,045	9,762,824
%YoY	16.51%	21.39%	21.89%	20.10%	17.13%	16.10%	15.71%	15.11%	15.15%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1.94%	26.11%	31.20%	36.74%	42.19%	48.02%	54.47%	61.47%	69.40%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50,292	325,380	422,994	541,432	676,790	832,452	998,942	1,178,752	1,379,140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097,966	81,470,905	83,915,032	86,432,483	89,025,457	91,696,221	94,447,108	97,280,521	100,198,937
%YoY	-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164	13,471,609	16,691,409	20,455,912	24,564,905	29,112,402	33,925,647	38,703,272	43,541,142
%YoY	55.00%	33.50%	23.90%	22.55%	20.09%	18.51%	16.53%	14.08%	12.50%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6%	16.54%	19.89%	23.67%	27.59%	31.75%	35.92%	39.79%	43.45%

자료: Ev-Sals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3.06.30 기준)